

정보자본주의와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장치 비판*

백육인**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장치’개념을 통해 접근한다. 현대정보자본주의는 수많은 장치의 증식과 축적을 통해 발전한다. 반대로 현대정보자본주의의 서비스 플랫폼은 가치를 증식하고 축적하는 장치이기도하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거대 서비스 업체의 플랫폼 장치들은 인지자본주의의 증식과 축적을 담당한다.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들은 사용자 활동 결과물을 수집·흡수하는 동시에 추적·포획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하나의 장치(dispositif)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푸코, 들뢰즈, 아감벤의 ‘장치’ 개념을 통해 검토해보고, 이를 활용하여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의 성격과 기제를 해명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푸코, 들뢰즈와 아감벤의 장치론을 살펴보고,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자서비스 장치와 이용자 활동의 수집포획장치가 하나로 통일된 장치로 보는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인지자본주의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SNS 서비스 플랫폼 분석을 위한 개념을 도출해내고, 이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구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제어: 인지자본주의, 플랫폼, 장치, 기계, 푸코, 이용자활동, 수집장치, 감시장치, 포획장치

1.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장치

현대정보자본주의는 장치들의 증식과 축적을 통해 진행된다. 2010년대의 대중화된 인터넷 시스템은 그 안에 다양한 장치들을 거느리기에 이르렀다. 거대 서비스 회사들의 플랫폼¹⁾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개발자들의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것은 이용자들의 활동장치이자 이용자 생산물의 수집장치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용자 감시장치로 연결될 수도 있다. 플랫폼은 제공하는 특정한 서비스가 실행되는 이용자 인터페이스인 동시에 이용자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그들의 활동 결과물을 축적하고 전유하는 기계인 동시에 그것을 사후적으로 재활용하고 상업화하는 축적의 도구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눈에 보이는 인터페이스(GUI : Graphic User Interface)와 이용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구성되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klangwelt@seoultech.ac.kr)

1) 플랫폼은 이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와 개발자 인터페이스(API : Application Platform Interface) 및 이를 운영하는 알고리즘의 총체를 지칭한다. 참고로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보면, “플랫폼이라 함은 콘텐츠와 같이 앱 개발자와 웹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제삼자가 Facebook에서 데이터를 받거나 Facebook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API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페이스북 이용약관 중 18. 용어정의 <https://www.facebook.com/legal/terms>)

어 있다. 가시성과 비가시성의 통합체인 플랫폼은 이런 점에서 ‘빛의 배분’을 이용한 ‘판옵티콘’과 닮아 있다. 그 결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는 비대칭적인 지식관계와 권력관계, 생산관계가 만들어진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 거대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자 서비스 결과물을 수취하고 전유하는 플랫폼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들은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자신들의 서버로 이전하는 동시에 축적된 정보를 다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순환적 증식회로를 이용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빅데이터에 관한 논의들은 대부분 빅데이터의 경제적인 활용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용자 활동 등을 통한 데이터의 자동 축적 과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은 이루어질 수 없다(백육인, 2013).

빅데이터는 정부기구, 공공단체, 사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경로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 가운데 민간 부문의 빅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용자 생산과 그 생산물의 변형과 확장 및 활용은 모두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미리 설정된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플랫폼에 관한 연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²⁾ 이 글에서는 이용자 활동을 수집하고 추적하는 거대 서비스 제공업체의 플랫폼에 관한 비판적 분석에 집중할 것이다. 플랫폼에 관한 비판적 연구는 이용자와 기업이라는 상이한 주체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어떻게 만나고, 이들이 추후 과정을 통해 어떻게 외부와 연결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서비스 플랫폼은 일차적으로 이용자의 활동을 도모하는 장치인 동시에 이용자 활동 결과물의 수집장치이다. 이후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는 수집되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활용하여 가치증식의 원료로 이용하거나 타겟 마케팅의 광고 대상으로 제공하거나, 국가장치를 위한 감시 대상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용자 활동, 이용자 활동의 전유, 이용자 활동에 대한 감시는 각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문화적 층위에서는 이용자의 문화와 ‘주체’가 플랫폼에 의해 만들어진다. 서비스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는 주체화 기능을 통해 이용자의 ‘신체적 독특성’과 정서를 표출하는 규격을 제공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틀을 만들어낸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한 주체화 과정에서 주어진 인터페이스와 플랫폼의 주체화된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 이용자 편의적인 인터페이스와 플랫폼은 그것에 ‘예속되는 신체와 마음의 기능’을 동시에 만들어 낸다. 결국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결집하는 사회적 주체형성의 조건과 형식뿐만 아니라 플랫폼 장치의 부품이 되는 수동적 주체화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층위에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이용자는 서비스

2) 인터넷 연구에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분석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갈로웨이(Galloway, 2012)와 마노비치(Manovich, 2013) 참조. 알고리즘을 통해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행위를 어떻게 통제하는가에 관한 오세욱 이재현(2013)의 연구와 ‘이중 인터페이스’에 관한 조동원(2013)의 연구도 참조할 것. 플랫폼에 관한 연구는 여러가지 서로 다른 개념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각각의 접근은 일정한 설명력을 지닌다. 그러나 그런 설명이 어떤 실천적 방향과 연결되는 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자신의 활동을 전유당한다. 이것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대가로 자신의 활동 결과물을 넘겨주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차원이다.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전유하여 가치증식을 위한 원료로 활용하거나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새로운 상업화의 재료로 이용한다.

셋째, 정치적 층위에서 플랫폼은 국가의 감시와 포획을 위한 다른 장치와 연결되거나 그것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국가권력은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규제를 통해 그들의 플랫폼에 영향을 미치거나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국가기구의 다른 통제 장치와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플랫폼은 국가권력의 감시 기계와 연결되어 활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플랫폼의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특히 SNS를 하나의 장치(dispositif, apparatus)³⁾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푸코(Foucault, 1980), 들뢰즈(Deleuze, 2006), 아감벤(Agamben, 2009) 등의 장치 개념을 검토하면서 이것을 인터넷 SNS 서비스 플랫폼에 확장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페이스북, 구글 등으로 대표되는 SNS 서비스 플랫폼 장치를 이러한 개념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3절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자 서비스와 이용자 활동 수집포획장치가 하나로 통일된 장치로 보는 시각을 제시한다. 4절에서는 장치와 권력관계, 지식관계, 생산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인지 자본주의의 축적기제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장’으로서의 서비스 플랫폼 분석을 위한 개념을 도출해내고, 이를 구체적인 서비스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는 데 있다.⁴⁾

3) 장치는 체제(system)나 기계(machine), 배치물(agencement ; assemblage)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장치라는 용어는 알튀셀(Althusser, 1971)가 국가장치와 이데올로기를 설명하면서 사용하였고, 이후 푸코가 장치라는 개념을 ‘판옵티콘’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전개하였다. 들뢰즈는 푸코의 장치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는 장치보다는 기계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는 데, 이는 그가 접합, 접속에 따른 배치의 변화를 지향하기 때문인 듯하다. 이후 아감벤은 세속화라는 틀로 장치학을 실천적으로 확장하였다. 장치 개념의 확장과 장치학에 대해서는 양창렬(2010) 참조.

4) 이 논문에서는 인지자본주의의 축적 기제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분석은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특히 SNS와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언급하는 수준에 만족하려고 한다. 인지자본주의에 관한 논의는 사회성격론, 노동과정론, 축적형태론, 계급론, 변혁주체론, 사회운동론에 미치는 방대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인지자본주의체제의 개별 생산과정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장치’의 개념을 통해 분석할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활용 가능한가를 시론적으로 검토해 보는 데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의 분석이 인지자본주의 전체나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일반의 성격을 드러낸다고 보기도 힘들 것이다. 이 논문은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중 SNS 서비스를 대상으로 ‘장치’ 개념의 유용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문다. 분야별로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수집하고 산출하는 정보, 금융기관 등이 고객정보와 개인소비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계, 그리고 SNS 회사들이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전유하는 방식 등은 공통점도 있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개별적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푸코, 들뢰즈, 아감벤의 장치론

푸코는 장치를 권력관계와 지식관계의 틀로 파악한다. 푸코는 정신분석학자들과 나는 인터뷰에서 ‘성장치에서 장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장치에는 늘 권력의 작동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치는 권력에서 생겨나고 또 권력을 조건 짓기도 하는 지식의 한가지 또는 여러 제한과 연결됩니다. 지식의 유형을 지탱하고, 또 그것에 의해 지탱되는 힘 관계의 전략들 그것이 바로 장치입니다(Foucault, 1980/, p.236).” 푸코의 장치는 ‘구체적인 전략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 권력관계 속에 기입된다. 이러한 장치는 하나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이질적인 집합체’이며, 장치 자체는 요소들 사이의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또한 푸코는 장치를 ‘지식-권력관계’라는 틀 안에서 검토한다. 특히 가시성이란 기준으로 ‘빛의 배분’을 통해 형성되는 비대칭적인 지식관계가 권력관계로 이어지는, 혹은 권력관계가 지식관계를 산출하는 장치의 효과에 주목하였다. 지식의 비대칭성과 권력의 비대칭성은 서로 상용하지만 권력을 구성하는 힘의 관계가 더 우위에 선다.⁵⁾

한편 들뢰즈는 푸코 철학이 ‘구체적인 장치’에 관한 분석이라고 말한다. 그는 “장치란 무엇인가”라는 글에서 장치가 서로 다른 선분들로 이루어진 실타래이며 다선적 전체라고 말한다. 들뢰즈(Deleuze, 2006)는 푸코의 장치를 방법론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는 장치를 여러 선분들의 얽힌 실타래로 규정한 후 장치를 가시성(visibility), 발화(utterance), 힘(force), 주체화(subjectivation)의 네 선분의 차원에서 설명한다. 그는 장치를 미래를 향한, 탈주를 향한, 되기를 위한 흐름의 정치와 연결한다. 들뢰즈는 되기와 흐름의 철학을 통해 장치를 권력의 것에서 탈주의 것으로 옮겨 놓고 있다. 이러한 들뢰즈의 장치 이해는 장치의 구속성보다 탈주성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그는 오래된 것보다 새 것을, 역사(history)보다 되기(becoming)를, 과거의 축적된 아카이브보다 현재의 흐름(current)을, 이론적 분석(analysis)보다 실천적인 진단(diagnosis)을 중시한다. 그는 장치의 두가지 방향을 계층화·퇴적화와 실재화·창조력으로 구분하여 미래를 향한 되기의 흐름에 전력할 것을 주장한다.

들뢰즈는 분석적 차원에서 장치의 관계와 배열을 강조한다. “기계는 아무 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기계는 단지 하나의 부품에 불과하다. 집합적 장치(collective apparatus)를 분석해야 한다(Deleuze, 2006, p. 67)” 그래서 들뢰즈에게는 기계로서의 장치 자체보다 기계-인간-노동-가치의 배열과 배치와 관계가 중요하다. 그가 장치라는 개념을 기계와 ‘배열(agencement ; assemblage)’로 확장하거나 대체하는 이유는 집합적 장치의 구성과 배열을 드러내는 것이 실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들뢰즈는 푸코 장치 철학의 두가지 의미를 ‘보편성의 거부’와 ‘새로움을 향한 방향전환’에서

5) “지식에 대한 권력의 우위, 지식관계에 대한 권력관계의 우위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지식관계가 만약 권력의 미분적 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결코 자신이 적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권력관계를 적분해주는 작동들이 없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 맹아적인 것, 혹은 가상적인 것이 되고 말리라는 점 또한 사실이다.”(Deleuze, 1986, pp. 127-128)

찾는다. 들뢰즈는 장치의 다수성과 복수성을 인정한다. 그는 어떤 장치의 수행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 되는 ‘되기’의 복수성을 주장한다. 이것은 장치의 일방적 지배에 대한 대항의 여지를 암시한다. 그는 모든 장치에서 지금 우리인 것과 더 이상 우리가 아닌 것을 구분해야 하고, 우리가 되고 있는 것, 역사의 현재, 곧 흐름이자 움직임의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치에 대한 실천적 해석은 오래된 것과 새 것, 역사와 생성, 아카이브와 흐름, 분석과 진단을 각각 대비하면서 새것의 생성을 실행하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 장치가 조장하는 권력-지식관계에서 벗어나 주체성을 생산하는 다른 형식을 통해 자신을 재투자하는 것이다. 그의 실천적 장치학은 균열하고, 부수고, 겹치게 하고, 뒤섞고, 배치를 통한 변이와 변형을 실현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선분들을 창출함을 의미한다.

들뢰즈의 실천적 장치학은 “어떤 빛과 언어의 조건 아래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으며 무엇을 보고 언표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는 어떤 권력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어떤 저항으로 맞설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Deleuze, 1986, pp. 172-173)”를 물음으로써 장치에 의한 지배를 수동적으로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된 권력의 선분과 완성된 지식의 선을 바꿔나가는 변화하는 장치의 의미를 드러낸다. 이러한 들뢰즈의 실천적 장치학은 현대의 지배적 장치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한편 아감벤은 푸코의 장치 개념을 일상생활의 영역으로 더욱 확장하면서 장치의 세속화 및 그에 대한 저항과 개입 등 실천적인 차원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장치에는 푸코가 제시한 감옥, 정신병원, 학교, 공장, 규율, 법적 조치 등 권력과 접속된 것들뿐만 아니라 펜, 글쓰기, 문학, 철학, 농업, 담배, 항해(인터넷 서핑), 컴퓨터, 휴대전화 등도 포함된다.⁶⁾

이들간에는 장치학에 대한 개념적인 규정과 이론적 입장, 방법론적 접근의 차이가 존재한다. 푸코가 장치의 규율적이고 권력과 결합된 지배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 분석에 기여했다면 들뢰즈는 장치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분석의 정교화된 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감벤은 현재적 조건에서 장치 개념을 적용하는 실마리와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아감벤의 장치론은 분석적, 방법론적 위상을 넘어 일상에서의 세속화된 실천 형태로 제시된다. 그는 이것을 장치들의 세속화라고 부른다. 장치의 세속화는 특정 지배 세력에게 귀속된 장치를 일반 대중이 접근하여 그들의 전유물로 활용함을 의미한다.⁷⁾ 이러한 실천적 장치학의 쓸모는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질까? 인지도본주의사회의 구성원들이 수동적 규율과 감시와 통제를 규제하는 장치를 넘어서서 그것을 새로운 창조의 장치로 바꿀 수 있을까? 이용자들이 서비스

6) “푸코가 말하는 장치는 이미 아주 넓은 부류인데 이것을 더 일반화하여 나는 생명체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도,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장치라고 부를 것이다.” 아감벤(Agamben, 2009/2010, 33쪽)

7) “장치들을 세속화하는 문제 즉 장치들 안에 포획되고 분리됐던 것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돌리는 문제는 그 만큼 긴급한 사안이다. 이 문제를 짚어낸 자들이 주체화 과정이나 장치들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통치될 수 없는 것에 빛을 비추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 문제는 올바르게 제기될 것이다” (Agamben, 2009/2010 48쪽)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배의 세속화가 일반적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플랫폼 장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진전하기 전에 장치 개념을 활용하여 SNS 서비스 플랫폼을 분석해 보자.

3. 세가지 양태의 통일체로서의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아감벤(Agamben, 2009/2010 35쪽)은 ‘장치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최종 단계를 장치들의 거대한 축적과 증식으로 정의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논의처럼 현대정보자본주의에서는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포함하여 무수한 장치의 축적과 증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들 장치 자체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가치증식과 축적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정보자본주의에서는 장치가 증식되고 대규모로 축적되는 동시에 그 장치 자체가 자본주의적 가치 증식과 축적을 위한 기계로 작동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SNS 서비스 플랫폼을 장치로 파악하고 그것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앞서 살펴본 장치론의 틀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아이폰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의 정보기계는 이용자 서비스기계, 이용자 활동 결과물 흡수기계, 이용자 추적기계의 결합이다. 이들은 국가의 규제와 직접적 통제의 바깥에 위치해 있다. 들뢰즈는 기계와 장치간의 관계를 혁명과 질서, 움직임과 정지의 대항관계로 설정하면서 기계의 능동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기계일지라도 그것의 움직임이 약해지거나 혁명적 동력이 약화되면 국가기구에 포획되거나 ‘국가장치(state apparatus)’에 혼합될 수 있다. 이용자의 흔적을 추적하여 특정한 행위자를 골라내는 SNS 서비스 플랫폼의 추적기계는 국가장치와 혼합되어 국가 바깥의 테러 용의자를 잡아내는 기계로 전환될 수 있다. ‘프리즘(Prism)’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장치 바깥에 존재하는 사기업의 SNS 서비스 플랫폼은 특정한 경우에 자신들의 기계에 국가장치가 연결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방관한다. 대표적 예로 미국의 ‘국가안보국(NSA)’는 사기업의 기계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의 흐름을 자신의 국가장치 안으로 끌어와서 그것을 분석하여 장치의 일부로 변환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⁸⁾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사례는 국가의 포획장치에 인터넷 서비스 기업의 기계들이 어떻게 붙잡힐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사이버스페이스가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초창기 자유주의자의 환상은 이러한 국가 개입을 통해 여지없이 무너진다. 국가는 포획장치를 통해 자유롭게 사기업의 플랫폼에 플러그를 꽂아 이용기계에서 이루어진 이용자의 활동과 활동 결과물을 수집하고

8) 2013년 6월8일 가디언지 온라인에 실린 다음 기사를 참조. “NSA’s Prism surveillance program: how it works and what it can do”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jun/08/nsa-prism-server-collection-facebook-google>

축적할 수 있다. SNS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의 이용기계이고, 기업에게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의 흡수기계이지만, 이러한 배치(agencement)에서는 국가장치에 의해 추적기계나 포획기계로 돌변하기도 한다. 이용기계(이용자)들의 탈중심적인 활동을 통해 ‘매끄러운 공간’을 구성했던 초기의 사이버스페이스는 자본과 국가의 본격적인 개입을 통해 ‘홈페인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⁹⁾

SNS 플랫폼의 배치와 이용자 간의 관계는 공간적이라기보다 시간적이다. 공간적 동일성과 시간적 순차성¹⁰⁾이라는 독특한 배치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 장치는 수집(흡수)장치에서 추적(포획)장치로 배열을 바꾼다. 이런 상이한 배열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자. 서비스 제공 기계로서의 플랫폼 장치는 이용자 활동기계, 수집(흡수)기계와 추적(포획)기계의 혼합물로서 이것은 이용자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경제적으로 수취하고 정치적으로 전유한다. 이런 면에서 SNS 플랫폼 장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선으로 이루어진 다선적인 실타래’이다. SNS 서비스 플랫폼 장치는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와 경제적 수취, 그리고 정치적 포획이 결합된 복합장치인 것이다. 그것은 서비스, 추적, 추적과 감시를 통일하면서 문화, 경제, 정치의 각각 다른 차원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배치한다. 이는 결국 플랫폼 장치가 문화, 경제, 정치의 차원에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각각의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안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근거를 존재론적으로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적 차원에서는 주체의 형성, 경제적 차원에서는 잉여의 생산과 착취, 정치적 차원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그것이다.

각각의 ‘기계 계통(phyllum machinique)’은 모두 이용자와의 계열적 관계에 의해 계통화되어 있다. 이들 세가지 기계계통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이용자 서비스 기계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장치이다. 140자의 글을 쓰고, 자신이 팔로우 하는 사람의 글들을 볼 수 있는 트위터(Twitter)의 서비스, 담벼락에 자신의 글을 게시하고 친구들의 담벼락 글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페이스북, 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검색을 제공하는 아마존,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기계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 기계의 기계적 계통은 ‘이용자-인터페이스-다른 이용자-소통-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수집(흡수)기계의 기계적 계통은 ‘기업-생산소비자로서의 이용자-지대-이윤-추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생산소비자(prosumer)’가 만든 비트를 자동으로 흡수하는 기계이다. 수집(흡수)기계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실시간으로 축적한다. 다수

9) 검색 포털이 가장 먼저 사이버스페이스를 영토화하기 시작했고, 몇 개의 거대 포털이 지배하는 영토와 인구(이용자)가 조성되었다. 이용자수와 해당 사이트에 머문 시간과 페이지뷰 등으로 특정 사이트의 가치가 평가되고 서열이 매겨지면서 인터넷은 영토화되고 이용자는 인구화되었다.

10) 이 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인간의 일상적 시간감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선후관계가 존재한다. 이용자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용자 활동의 흡수 혹은 포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의 이용자가 올린 글과 사진 등의 콘텐츠, 서로의 글이나 내용물에 단 댓글, ‘좋아요’ 등의 평가(rating), 검색어 등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의 빅데이터 서버에 자동으로 축적된다.

셋째, 추적(포획)기계¹¹⁾는 이용자 신상정보(아이디, 인구학적 변인, 데이터 그래프 등)를 이용자의 서비스 소비나 활동과 결합하여 이용자의 정체나 소비행태를 추적하는 기계이다. 추적(포획)기계의 계통은 ‘코드-이용자활동 및 소비-흔적-추적’이라는 배열로 이루어진다. 이런 추적(포획)기계가 국가권력의 수중으로 넘어가거나 국가기구와 연결되면 그것은 완전한 ‘포획기계’가 된다. 이들 세가지 기계계통은 서비스 플랫폼 장치와 이용자 활동에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디지털 비트라는 질료의 세가지 양태를 보여준다. 곧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생산된 이용자 생산 비트는 각각 ① 일상언어를 이용한 활동, ② 이용자 활동 결과물의 무정형적 축적물, ③ 추적을 위한 비트 흔적의 축적물이라는 세가지 양태의 결합물이다.

이용자들끼리의 소통과 담화, 상호작용 결과는 사이버스페이스의 문화라는 장을 구성한다. 이것은 일상언어로 쓰여지고 그러한 소통의 틀 안에서 교환된다. 이것은 가시적이고 담론적이며 사회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이나 미디어적인 기능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빅데이터의 핵심을 이루는 층위로서 자동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제공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다.¹²⁾ 이와 달리 비트 흔적물들은 이용자들의 눈에 가시화되지 않는다. 이용자 활동의 결과물들은 메타데이터나 비트의 단위로 처리된 후 나중에 알고리즘을 통해 추적될 수 있도록 분류된다. 이것은 이용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에 속하며 이들은 담론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이 레이어는 비트의 추적을 통한 개인 신상 및 정체 확인으로 이어지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타겟 마케팅의 원료로 전환된다. 이용자 활동이 축적되고 그들이 남긴 행위 비트가 많아지면 이용자들은 미리 짜둔 서비스 제공업체의 알고리즘에 의해 범주화되고 분류된다.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이용자 활동과 활동 결과물의 누적 양이 증가함에 따라 추적의 가능성과 정확성, 표적 맞추기의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이런 과정을

11) 이 논문에서의 ‘포획’은 이용자의 활동과 활동결과물 및 이용자 자체에 개입하여 이용자의 자유와 주체성을 왜곡하거나 억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용자를 ‘포획’하는 주체는 자본이거나 국가권력이다. 이용자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양도하는 동시에 그의 활동과정을 담고 있는 메타데이터, 활동 흔적 데이터를 자동으로 넘겨준다. 자본은 나중에 이들 활동 흔적들을 추적하여 개인 신상정보와 매칭하거나 여러 이용자의 활동 결과물을 적분하고 변형하여 상품화한다. 이용자는 추적과 감시를 통해 자본에 포획되어 소비자로 전락한다. 한편 국가는 이용자 행위와 신상정보를 결합하여 이용자의 특정한 행위에 개입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국가는 이용자들이 지배의 틀에서 벗어날 때 다시 질서와 통치의 틀 안으로 포획하여 체제내화 한다.

12) SNS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한 활동, 이용자 활동 결과물의 무정형적 축적물, 추적을 위한 비트 흔적의 축적물을 정보, 콘텐츠, 데이터로 규정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이용 약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보”는 Facebook과 교류하는 회원과 비회원에 의한 활동을 포함해 회원님에 관한 사실과 기타 정보를 의미합니다. “콘텐츠”라 함은 회원님이나 다른 사용자들이 Facebook에 올린 게시물 가운데 “정보”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사용자 데이터”, 또는 “사용자의 데이터”는 회원님이나 다른 사용자가 Facebook에서 발췌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Facebook에 제공한 사용자의 콘텐츠나 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말합니다. (페이스북 이용 약관 중 용어정의 <https://www.facebook.com/legal/terms>)

통해 이용자는 기계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미리 맞춰진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이버네틱스의 대상 목표물이 된다. 이용기계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러한 이용의 결과로 자신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활용될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수집기계의 입구로 작동한다. 추적기계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범주화되고 특정 군락으로 분류하여 이용자를 표적으로 만든다. 이처럼 기계장치의 시공간적 구성은 이용자 활동과 함께 연결되거나 시차를 두고 이어지는 다른 배열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플랫폼은 복합적인 배치와 배열이 시공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자 환경이다.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활동의 공간적 배치와 시간적 배열은 다양하고 중층적으로 변화한다.

4. 장치와 권력관계, 지식관계, 생산관계

‘기술은 물질화된 사회관계(Vercellone, 2007)’이다. 이런 입장에서 플랫폼을 보자면 그것은 잉여가치를 추출해내기 위한 새로운 방식과 효율성을 지닌 기술이자 장치이며 기계이다. SNS, 빅데이터, 플랫폼, 웹 2.0 등 새로운 정보 관련 기술은 기술 자체에 대한 공학적 분석이나 경영적 차원의 효과에 대한 정책으로 국한될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축적양식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생산관계를 함유하는 동시에 새로운 생산관계를 창출하는 모순적인 기술이다. 인지자본주의의 기술에는 서로 상이한 생산방식의 복합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결합체, 일반지식의 공유와 지적재산권의 배타성이 공존한다. 그것은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장치이다. 그래서 SNS 서비스 플랫폼이란 구체적인 장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지식관계, 권력관계, 생산관계의 차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SNS 이용자 서비스 장치와 수집흡수장치의 결합(플랫폼의 지식관계)

SNS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는 이용자 활동과 서비스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축적된 빅데이터는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비대칭적 관계를 낳는다. 이용자는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활동 결과물을 전유당하고, 그의 활동 행위를 추적당한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회사 사이의 이용약관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이용자 활동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 회사의 전유물로 축적되기 시작한다.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플랫폼 안에서의 이용자 활동은 1) 이용자 개인 식별 데이터, 2) 이용자 활동 결과물 데이터, 3) 이용 흔적 데이터라는 세가지 층위의 데이터로 축적된다. 개인 식별 정보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신의 아이디 및 관련된 신상정보를 넘겨줌으로써 생성된다. 이런 신상 데이터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넘겨주

어야 비로소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기 때문에 개인 이용자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신상 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개인신상정보의 내용과 폭은 단순한 아이디에서 이름, 거주지, 나이, 성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후 개인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 그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들 세가지 데이터 레이어를 조합하고 결합할 때 이용자에 대한 직간접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일단 자신에 대한 식별정보와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가 플랫폼 서비스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면 이용자는 자신의 신상정보와 활동 결과물, 흔적 데이터 중 어느 것에도 자신의 통제권을 행사하기 힘들다. 자신의 신상정보는 다른 이용자들의 신상정보와 결합하여 플랫폼 서비스 회사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로 변환된다. 공짜로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대가로 그들은 빅데이터를 자사의 자산으로 만든다. 이용자 자신이 만든 활동 결과물은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부분으로 서비스업체에 전유된다. 한편 이용자가 남긴 활동 흔적은 자신을 향한 통제와 조절의 도구로 변형되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에게 되돌아온다. 결국 스스로 서비스의 이용자로 있는 동안 어느 것 하나도 이용자 자신의 온전한 통제 아래 놓여있지 않게 된다. SNS 서비스 플랫폼을 관장하는 알고리즘이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관장한다. 그 결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의 불평등한 정보 보유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결국 비대칭적인 지식관계로 이어진다.

2) 추적포획장치(플랫폼의 권력관계)

푸코는 권력을 ‘절차의 총체’로 파악하였다. “권력관계의 분석이 사회에 대한 총체적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플랫폼 권력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권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인지자본주의 혹은 정보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 진입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것은 플랫폼이라는 ‘실제적인 힘’에 대한 지식을 만드는 작업으로서 ‘진실과 투쟁’의 순환을 통해 ‘철학적 실천’, 곧 ‘진실의 정치학’을 전개하는 것이다.

플랫폼을 매개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만들어지는 권력관계는 어떤 것일까? 플랫폼 권력은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자본과 이용자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에 내재한다. 플랫폼 권력은 일차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통해 절차적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NS 서비스 업체는 약관계약을 통해 개별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이용자’ 관계를 만든다.¹³⁾ 이용자가 일단 서비스 플랫폼의 약관에 동의하면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의 이용권을 취득한다. 반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확보한다.

13) 이를 통해 이용자와 거대 SNS 서비스 업체 사이에는 일종의 지대관계가 만들어진다. 이들 간의 지대관계는 서비스 플랫폼 소유자인 기업과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간의 ‘서비스제공-이용관계’인데 이용자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는 그 대가로 이용자들의 활동 결과물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구글의 예를 들어보자. 구글의 약관은 이용자 활동 결과물의 하나인 콘텐츠의 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귀하가 콘텐츠를 Google 서비스에 업로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Google(및 Google의 협력사)이 이러한 콘텐츠를 사용, 저장, 복제, 수정, 이차적 저작물(귀하의 콘텐츠가 Google 서비스와 더 잘 작동하도록 Google이 생성하는 번역본, 개작본, 또는 수정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 제작, 전달, 공개, 공개적으로 실연, 공개적으로 게시 및 배포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하게 됩니다.”¹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글을 포함한 대부분의 거대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 서비스 및 이용자가 이용한 시간 및 내용, 이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를 통해 거대 서비스 회사들의 플랫폼은 이용자 생산물의 수집장치를 이용자 감시장치로 연결될 수도 있는 다중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용자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들은 자신의 활동 결과물뿐만 아니라 추후에 ‘추적(track and trace)’될 수 있는 흔적 데이터를 남긴다. 활동결과물의 생성과 추적 모두 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눈에 보이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이용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의 전유를 비롯하여 활동 흔적의 축적과 추적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들뢰즈(Deleuze, 2006)는 장치를 가시성, 발화, 권력, 주체화의 네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장치는 무엇보다도 ‘가시성(visibility)’을 통해 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계이다. “가시성은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밝히는 일반적인 빛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시성은 장치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형체를 형성하는 빛의 선으로 구성된다. 장치는 ‘빛의 체제’를 갖는다. 장치는 빛이 엷어지고, 퍼지고, 보이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분배하고, 대상을 켜거나 끈다.(Deleuze, 2006, p. 339)” 감옥장치는 감시자가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만들면서 피감시자를 보는 광학기계인데, 이것은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장치에도 존재한다.

이용자 활동의 축적과 추적은 플랫폼의 소프트웨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코드의 활동 결과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은 건물(아키텍처 : architecture)의 외관과 기능에만 주목하듯이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또한 이용자 인터페이스하고만 만난다. 그 건물의 기초를 이루는 건물의 지하와 뼈대, 복잡한 배선과 설비 등은 이용자의 관심이 아니다. 그러나 서비스 플랫폼의 아키텍처는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드러나지 않는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눈에 보이는 이용자 인터페이스는 플랫폼 아키텍처의 외관에 불과하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서비스 회사들은 이용자 활동을 통해 만들어지는 콘텐츠와 흔적 데이터를 빅데이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물로 축적한다. 서비스 플랫폼 회사는 이용자가 남긴 이런 흔적을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면서 그 결과물을 분석하고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에 활용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로 변형한다. 검색 사이트의 실시간 인기

14) 구글 서비스 이용 약관 중 구글 서비스에 포함된 귀하의 콘텐츠에 관한 규정.

(<https://www.google.co.kr/intl/ko/policies/terms/regional.html>)

검색어 서비스나 검색어 통계를 활용한 트렌드 예측, 이용자 활동 추적 결과물을 활용한 표적 마케팅 등은 이용자 활동 흔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미래의 이용자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빅데이터 활용 방식은 사이버네틱스의 경제적 통제의 차원을 잘 보여준다. 기업과 이용자 간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이런 알고리즘의 작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약 이용자 활동 결과물과 그것이 남긴 흔적을 국가기구가 전유하여 이용자를 감시하고 추적할 경우에는 정치적 차원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감시와 통제라는 권력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을 통해 전유되는 이용자 활동에 대한 지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지는 은밀한 권력관계는 그것을 통해 수집·흡수한 지식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의 활동과 경향을 파악하고 예측하여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관점에서 이용자들의 살아있는 현재의 삶에 개입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정보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관계와 권력관계의 결합을 통한 통제인 것이다.

3) 가치증식장치(플랫폼의 생산관계)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개별 공장에서의 착취가 ‘사회적 공장’으로 확산된다. 이에 따라 자본의 지배는 개별 공장이나 사업장을 넘어 생활세계로 확장된다. 인지자본주의의 사회적 공장은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자본의 권력은 전체 사회로 확산된다.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은 자본의 권력이 개별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범위를 넘어 이용자로 구성되는 일상생활의 세계로 확장되고 확산되도록 만든다.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은 사용자들의 소통과 ‘정동(affection)’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적 생산물이다. 서비스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자본과 이용자 간의 생산관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먼저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약관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활동결과물과 서비스를 교환한다. 이를 통해 양자 사이에 지대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임대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은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이용 결과물을 플랫폼에 공유물로 이전한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에 자신의 활동 결과물이나 이용의 흔적들이 플랫폼 제공자에 의해 적분되거나 수집·흡수되는 것에 동의한다. 이것을 플랫폼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약관 계약을 통해 형성되는 디지털 현물지대관계로 볼 수 있겠다. 봉건시대 농업의 반타작과 유사하게 이용자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 플랫폼 제공자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지대관계는 서비스 플랫폼 소유자인 기업과 서비스 플랫폼 이용자 간의 서비스제공·이용관계인데 이용자들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는 그 대가로 이용자들의 활동 결과물을 전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이것을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장을 매개하는 양면시장론(강남훈, 2010; 박지웅,

2011)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서비스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이들 사이에 지대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가치증식을 위해서는 정보를 사이버네틱스 회로로 끌어와서 흐르게 만들어야 하는 데, 가치증식을 위한 회로로 들어가기 전에 정보와 지식이 먼저 채집되거나 수집되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업체의 플랫폼은 일차적으로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자동으로 채집한다. 이용자는 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자신의 생산물을 수취당한다. 정보의 원천은 이용자의 활동이다. 정보 원천(이용자 활동과 활동 결과물)을 가치증식회로로 ‘수집’하거나 ‘이끄는’ 기계가 서비스 플랫폼이다. 물론 정보 원천의 특성과 대응에 따라 가치증식회로로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기를 거부하거나, 혹은 들어가더라도 가치증식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잃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플랫폼 매개 지대관계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 플랫폼에서 할당받는 각종 서비스와 편의 설비의 대가로 자신이 활동한 디지털 흔적과 그 결과물을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에게 양도한다. 이용자에게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과 플랫폼이 제공하는 모듈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플랫폼 제공업자는 이용자 활동 결과물 전체를 배타적으로 활용하고 전유한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절대지대의 현물형태처럼 이러한 지대는 현물 형태로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된다. 현물지대 형태로 수취된 이용자 활동 결과물들은 서비스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의해 분류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로 적분된다. 정서, 감정, 정보, 소통, 검색, 믿음 등을 담은 게시물과 댓글은 ‘좋아요’ 등의 평점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축적된다. 이러한 이용자 활동 결과물은 개별 이용자에게는 자신의 것만 제한된 몫으로 남지만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전체 이용자의 축적 결과물로 저장된다. 이용자의 수가 많을수록 디지털 농장의 생산물은 더욱 증가하고 자신에게 지대 형태로 수취되는 디지털 비트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더구나 이용자는 활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동시에 디지털 복제물의 특성 상 자신의 활동 결과물과 서비스 제공자가 전유하는 디지털 비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의 활동 결과물들이 지대 형태로 수취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집되고 집적된 이용자 활동 비트들이 인지가본주의적 생산체제의 가장 중요한 원료를 구성한다.

그러나 플랫폼은 이러한 수집(흡수)장치에 그치지 않는다. 플랫폼은 적분된 이용자 활동 결과물의 축적물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여러 가지 용도로 전유하는 장치로 이어진다. 이는 시간적으로 이용자의 활동 결과물이 수집(흡수)된 이후에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 지체의 간격이 매우 짧아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세심한 개발과 특정 용도에 맞게 상당한 시간 이후에 전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서비스 플랫폼은 수집(흡수) 장치와 추적(포획)장치의 결합물로 동시에 작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양자를 시공간적으로 분리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이용자 서비스 장치를 통해 수집(흡수)되는 활동 결과물을 곧바로 추적(포획)장치를 통해 분석하고 분류하여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마케팅 자료나 광고물로 변형시킬 수도 있다. 생산과정 역할을 담당하는 알고리즘이 이용자 활동 결과물을 원료로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자동으로 생성할 경우 추적(포획)장치는 가치증식장치와 결합되기도 한다.

이 때 이용인구(user population)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것은 플랫폼 지대를 확장하고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래서 SNS 서비스 제공업체는 앱의 육성하거나 플랫폼을 개방하여 다양한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인구를 유지하고 확대하려 노력한다. 이용자가 적어지거나 이용자 활동이 떨어지거나 트래픽이 감소하면 플랫폼 지대 수익의 총량이 감소하고 그것은 곧 다음에 이어질 생산과정에서 기계적 잉여가치를 창출할 원료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5. 장치에서 물러설 것인가, 바꿀 것인가

이상에서 ‘장치’ 개념을 활용하여 SNS 서비스 플랫폼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지식·권력관계와 생산관계를 알아보았다. 장치에는 “늘 권력의 작동이 기입되어 있고, 권력에서 생겨나고 또 권력을 조건 짓기도 하는 지식의 여러 제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명제가 SNS 서비스 플랫폼 장치에서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를 통해 SNS 서비스 플랫폼의 권력관계는 이용자 활동 데이터를 분석하는 지식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장치가 “지식의 유형을 지탱하고, 그것에 의해 지탱되는 힘 관계의 전략들”이라고 할 때 인터넷에서는 이용자와 서비스 플랫폼 제공자간에 형성되는 비대칭적인 지식관계가 감시와 통제라는 권력관계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도 보았다. SNS 서비스 플랫폼은 이용자의 활동을 자극하고 유인하며 방향을 바꾸고, 어렵게 혹은 쉽게 만들며, 확장 혹은 제한하고, 더 혹은 덜 개연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플랫폼이 이용자에게 행사하는 권력의 방식이자 범주들이다(Deleuze, 1986, p.114). SNS 서비스 플랫폼의 권력은 장치에 내재하면서 장치와 함께 변화한다.

SNS 서비스 플랫폼 장치는 빛을 꺼버리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모든 곳에 편재하거나,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지면서 이용자를 통제한다. 그것은 이용자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가시성과 발화성에 입각하여 이용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고 그들의 힘과 주체화를 강화하는 것처럼 작동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용자들의 활동 결과물을 수취하고, 그들의 활동을 추적하고 통제한다. SNS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장치 기계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고, 반대로 보이는 것을 안보이게 하거나, 안 들리는 것을 들리게 하고, 들리는 것을 안 들리게 할 수도 있다. 소프트웨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비가시성의 영역에 속한다. 소프트웨어의 언어는 발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건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명령어의 집합으로서 실행을 담당하는 조건부 명령의 집합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발화가 플랫폼의 가시적 영역인 이용자 인터페이스로 작동하면서 수집·추적·포획을 양태를 바꿔가며 수행한다. 비트의 다양한 조합과 축적물인 빅데이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기반 알고리즘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그것을 활용한 권력, 그것을 이용한

가치증식 등 세가지 전체의 차원에서 근대 규율사회의 판옵티콘이라는 장치를 뛰어 넘는다. 독점적 SNS 서비스 플랫폼은 ‘눈->뇌->말->귀’로 연결되는 접합에 균열을 가하고, 가시성과 발화를 알고리즘의 힘으로 통제하면서 이용자가 주체화되는 방식과 그것의 특징과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플랫폼 결합체’,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 구글로 대표되는 검색장치 모두에 해당된다. 정보기계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없는 것을 있게 만들 수 있으며, 있던 것을 변형하거나 없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¹⁵⁾ 장치기계는 권력관계, 부를 생산하는 방식과 관계(생산관계), 사회관계를 만들거나 운동하는 방식(소통관계),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정보관계),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속도를 바꾸었다.

서비스 플랫폼 장치의 지식관계, 권력관계, 생산관계는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대칭적이다. 이용자는 자신의 활동 결과물을 서비스 플랫폼에 넘겨줌으로써 자신에 대한 지식과 정보 또한 양도한다. 비대칭적인 지식관계는 통제하고 통제당하는 권력관계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추동하는 핵심적 동력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지는 생산관계에서 나온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지식권력관계와 생산관계를 탈피하려면 장치에서 물러서거나 장치에 대항하는 두가지 방법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동화된 플랫폼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벗어날 대안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서비스 플랫폼 자체가 이용자 활동의 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공짜 서비스를 즐기는 대신에 그들에 대한 식별 정보와, 활동 결과물, 이용 흔적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손쉽게 건네준다. 서비스 플랫폼의 이러한 모순적 속성이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자발적 저항을 어렵게 만든다.

안타깝게도 이용자가 인터페이스 수준이나 데이터 활용 영역에 개입하고 참여할 방법이나 도구도 별로 없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해킹이나 ‘물러서기(이용거부)’ 정도가 그나마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권력이 힘들의 관계’이고, 모든 힘들의 관계가 하나의 ‘권력관계’라면(Deleuze, 1986, p.113), 모든 힘들은 언제나 특정한 권력관계이다. 그래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전유하고 이용자를 감시하며 이용자를 수단으로 내모는 플랫폼 체제를 극복할 주체는 이용자 이외의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다. 빅데이터 시대의 이용자 운동은 아쉽지만 이처럼 명백하고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15) 사물을 눈에 보이는 가시성의 영역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와 법칙 -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구조와 본질, 법칙 -으로 파악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도입은 눈의 가시적 영역을 예측하거나 제어하는 데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과학기구의 발명과 척도의 개발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 가시성을 확장하는 방향과,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척도를 마련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통제와 제어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 사물 현상을 척도로 잴 수 있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법칙화된 틀의 코드로 이해된 사물은 이제 인간의 개입과 통제 대상이 된다. 사물에 대한 이해가 사물을 전유하고 통제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게 된 것이다. 정보는 이러한 가시성의 비가시성으로의 변환과 연관된다. 사물을 정보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과학적 방식이 인간에 적용되면 인간이 비가시성의 논리에 의해 통제된다.

Ⅰ 참고문헌

- 강남훈 (2010). 정보혁명과 자본주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7권 2호, 35-66.
- 박지웅 (2011). 정보제 가치와 플랫폼: 양면시장을 고려한 정보제 가치논쟁의 검토 『경제학연구』, 59권1호, 95-130.
- 백옥인 (2013). 빅데이터의 형성과 전유체제 비판. 『동향과 전망』, 87호, 304-331.
- 양창렬 (2010). 장치학을 위한 서론, 『장치란 무엇인가? : 장치학을 위한 서론』. 91-169. 서울. 난장.
- 오세욱·이재현 (2013). 소프트웨어 “페이스북”의 알고리즘 분석-행위자 네트워크 관점. 『언론과 사회』, 21권 1호, 136-183.
- 조동원 (2013). 인터넷의 이중적 플랫폼. 『한국언론정보학보』, 64호, 5-30.
- Agamben, G.(2009). What is an Apparatus? and Other Essays. Stanford University Press. 양창렬 역 (2010). 『장치란 무엇인가? : 장치학을 위한 서론』. 서울. 난장.
- Althusser, L. (1971).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In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Monthly Review Press.
- Deleuze, G.(1986). Foucault. 허경 역(2003). 『푸코』. 서울. 동문선.
- Deleuze, G.(2006). What is a Dispositif. In Two Regimes of Madness: Texts and Interviews 1975-1995. (pp. 338-348). Semiotext.
- Foucault, M.(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u Writings, 1972-1977. ed. C. Gordon. Pantheon Books. 홍성민 역(1991). 『권력과 지식 : 미셸 푸코와의 대답』. 서울. 나남.
- Galloway, A. R. (2004). Protocol: How Control Exists after Decentralization. The MIT Press.
- Galloway, A. R. (2012). The Interface Effect (1st ed.). Polity.
- Manovich, L.(2013). Media after Software. *Journal of Visual Culture*, 12(1), 30-37.
- Vercellone, C.(2007). From Formal Subsumption to General Intellect : Elements for a Marxist Reading of the Thesis of Cognitive Capital. *Historical Materialism*, 15, 13-36.

(투고일자: 2013. 12. 1, 수정일자: 2014. 1. 17, 게재확정일자: 2014. 1. 24)

ABSTRACT

Information Capitalism and Platform Dispositif

Wook-Inn Pai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lose the characteristics of SNS service platform in the perspective of ‘dispositif’. To achieve this I extended Foucault’s concept of ‘dispositif’ to the Internet and service platform of Google, Facebook. The platform dispositif is a complex of the interface services for the users, collection of data produced by users and the control of them. These three aspects are combined in the service platform modifying their modes in terms of time and space. This study would provide a critical approach toward the appropriation and control of user activities based upon platform.

Keywords: platform dispositif, machine, Foucault, user activity, collection dispositif, surveillance dispositif, captive dispositif

* Professor Dept.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